

# 정규과정 - 블로그에서 책까지 글쓰기 실습

---

주제 : BLOOK과 SNS 작가



최근에는 블로그 외에도 SNS를 통해 작가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BLOOK 및 SNS 작가의 개념과 유래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살펴봅니다.



블록(Block)은 ‘블로그(Blog)’와 ‘책(Book)’의 합성어로,  
개인이 블로그에 연재한 글과 사진 등을 모아 출판한 책을 뜻합니다.

2002년 토니 피어스(Tony Pierce)라는 네티즌이  
1년간 자신의 블로그에 쓴 게시물을 모아 책을 발간할 때 독자들을 대상으로  
책 제목에 대한 콘테스트를 하였는데 이때 제프 자비스(Jeff Jarvis)라는 저널리스트가  
제안한 블록이라는 제목이 채택되어 그때부터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록은 출판의 무게중심이 출판사에서 소비자(저자·독자)로 급속히 옮겨가게 하였고,  
작가와 일반인으로 나누는 출판 주체의 경계 또한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출판의 순서입니다.

기존의 출판구조는 출판사 → 저자 → 독자로 이어졌지만  
블록의 경우 저자 및 독자 → 출판사 → 독자로 제작과 유통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충분한 독자를 확보한 뒤 아날로그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  
블록의 가장 큰 장점이며, 실제 출판 시장에서 높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ब्ल록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요리, 육아 등 실용분야의 ब्ल록들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후 개성 강한 파워 블로거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지식, 인문학,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ब्ल록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블로그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글과 사진 등을 모은 출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SNS 플랫폼이 대중화된 후 문화예술 상품 소비는  
SNS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출판업계에선 SNS에 짧은 문장이나 시를 올리고 이를 책으로도 출판하는 작가들을  
'SNS 작가'라고 부릅니다.

SNS 작가들은 유머러스 하면서도 일상에서 학업이나 일,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이  
공감할 만한 글귀로 SNS 독자たちの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SNS 작가들의 책이 잘 팔리는 것은 독서 방식의 변화와도 연관됩니다.  
젊은 독자층은 일러스트나 사진, 이미지 등을 더한 책들에 더 호응을 보냅니다.  
이러한 책들은 독서를 마친 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된 ब्ल록과 대표 SNS 작가들의 저서를 통해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스머프할배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 일기  
저자 정성기 / 헤이박스 / 2016년 2월 출간  
저자가 스머프할배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에 연재했던  
치매 노모 봉양기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연재 당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된 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에세이  
저자 백세희 / 흔 / 2018년 6월 출간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와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를 전전했던 저자와 정신과  
전문의와의 12주간의 대화를 엮은 책입니다.  
출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가 게재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덤덤하게 전하면서 독자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3.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자기 자비 연습  
저자 박진영 / 호우 / 2018년 5월 출간  
지농농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심리학자 박진영의 신작으로,  
꾸준히 블로그와 트위터에 사회심리학 이야기를  
올리며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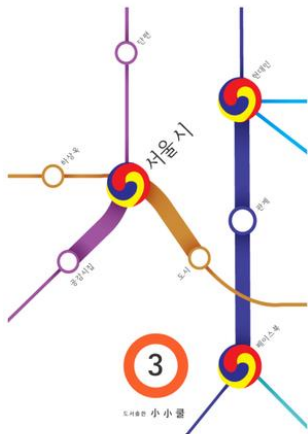
4. <오차원의 꽃>

저자 오유미 / 비타북스 / 2018년 5월 출간  
수만 명이 열광한 SNS 꽃 대란의 주인공으로  
SNS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안다는 꽃이기도 합니다.  
힙스터들이 사랑하는 홍대 상수동 플라워숍  
‘오차원’의 감각을 엮은 책입니다.



5. <모든 순간이 너였다>

저자 하태완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2월 출간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NS 작가 하태완의 두 번째 에세이로  
SNS와 전작 『#너에게』를 통해 50만 명에 이르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그는  
이 작품으로 더욱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6. <서울시>

저자 하상욱 / 중앙북스 / 2013년 2월 출간  
SNS 작가의 원조 격인 하상욱의 첫 시집으로,  
SNS는 물론 인터넷 포털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며 인기를 끈 하상욱 시인의 짧지만  
공감 가는 다양한 시편들을 엮은 책입니다.  
전자책으로 무료로 출간된 이후 폭발적 인기를 누려  
이례적으로 종이책으로 재 탄생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 [Blook] (두산백과)
- (기사) 소통과 공감의 힘...잘나가는 ‘SNS 작가들’